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심의 총평

- 일시 : 2017. 1. 25(수)
- 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실
- 심의위원은 2월 심의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하지 못하고 심의 종료 후에 공개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분야에는 총 29건이 신청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시각예술비평에 정진해온 학자와 계간지를 발행하는 전문학술단체를 비롯하여, 소장 비평가들의 응모도 눈에 띄었다. 지원심의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30%),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등의 심의 기준에 의한 채점제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획안, 즉 개인 작업에 대해 스스로 비평하는 사례 및 타 재단의 기획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획안 등을 제외하고, 동시대 시각 예술 비평의 지평을 넓히고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획안을 위주로 선별했다. 올해는 한중일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 내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안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학술적으로나, 현장에서 동아시아 아방가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건축과 퍼포먼스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시각예술분야의 확장성을 짚어보는 사업 중 몇몇이 한국 현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원의 의의가 자생적으로 활발한 시도를 한 개인/기관에 기금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최근의 성과가 부실한 기관보다는 자발적인 노력을 계속해온 개인 및 단체를 선별하기 위해 논의 및 검증을 계속했다. 각각 미디어 영상 분야에 매체의 특성을 살린 단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의 활동상이 부진한 경우는 아쉽게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한 출판물의 유통 및 배포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하게 되었다. 비평의 결과물이 소수나 전문가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제대로 된 유통망을 갖춘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고, 미술애호가 및 일반인들 모두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는가를 공적 기금 지원의 중요한 요건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총 1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